



서울대 同窓會 報

2001년 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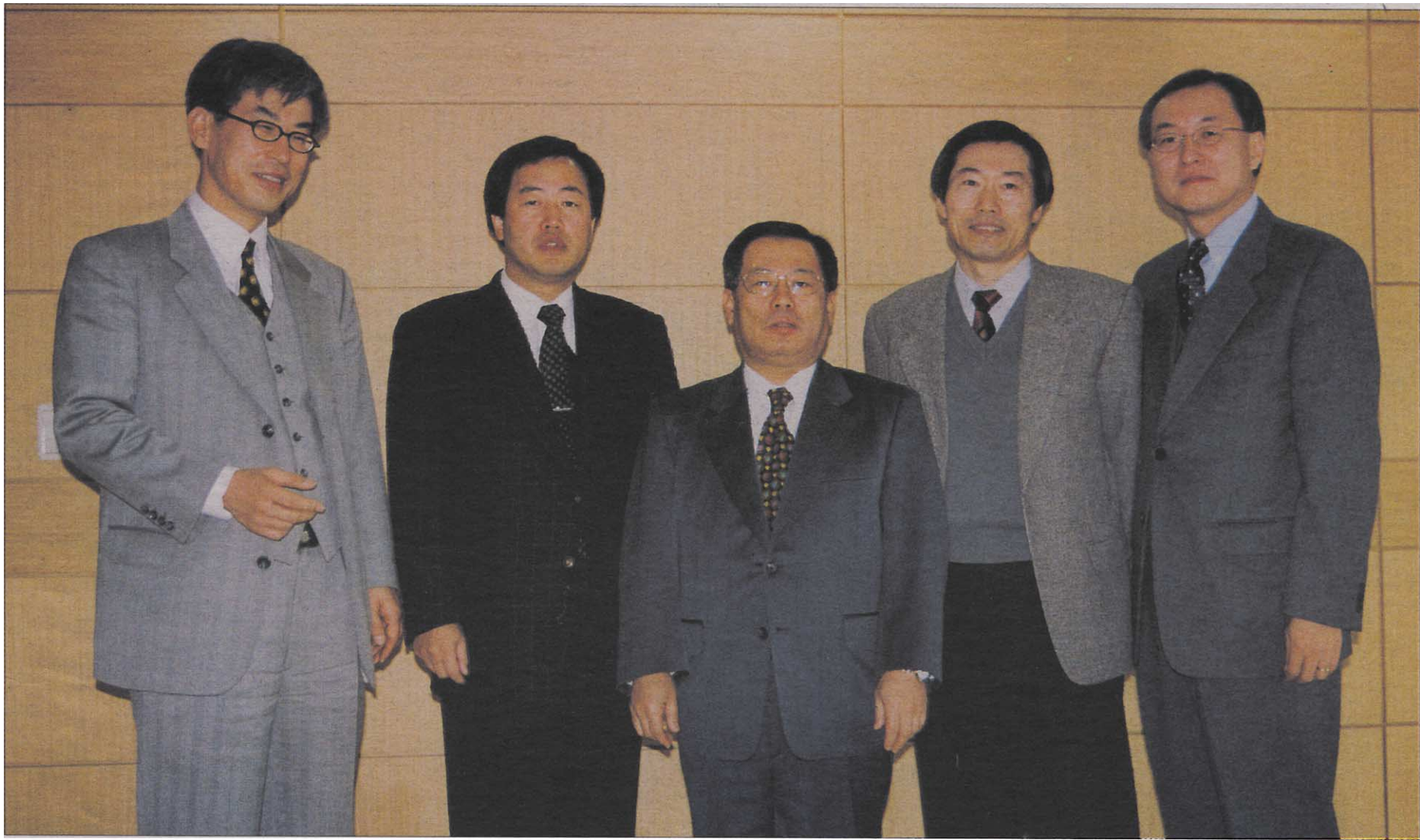
【월간】 제275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좌로부터 모교 발전기금 郭守根상임이사, 劉永濟입학처장, 朴吾銑기획실장, 李秉基연구처장, 朴泰鎬대외교류처장 (커버스토리 10~11면)

세계 수준의 교육·사회봉사 우리가 해낸다

관약춘추

금년도 서울대 입시 특차에서 수능 만점자가 불합격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수능 만점자 총 66명 중 58명이 서울대에 지원했으나 1명이 내신성적 2등급에 제2 외국어 과목에서 만점을 받지 못해 낙방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학고의 2학년 여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내신성적으로는 서울대 입학이 어렵다고 판단,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와 MIT대에 동시에 합격해서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두 학생의 얘기는 성적위주의 「줄 세우기」를 통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온 지금까지의 우리 대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대 입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매년 입시 때면 京鄕各地의 영재라는 젊은이들은 거의 서울대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제일이라는 모교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가. 몇년전 서울대가 세계 대학랭킹 수백위 안에도 끼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李基俊총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수준의 SCI(美과학정보연구소 과학기술논문색인)에 게재된 99년도 서울대 논문 수는 고작 73위에

그쳤다. 서울대가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 MIT대, 동경대 등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40위 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한다. 李총장이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2~3년 내 서울대를 세계 50위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1세기 국가경쟁력 창출을 위한 모교의 세계일류대학 육성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교가 최근 「뉴 밀레니엄 비전과 전략」안을 마련, 서울대를 경쟁력 있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World

무한경쟁시대의 대학

-Class 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흔히 교육은 기업에서 말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경쟁력으로 측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제 대학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게 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분야에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와 함께 대학구성원 및 조직

의 자질(Competence)향상, 그리고 세계 일류대학과 네트워크를 통한 커넥션(Connection)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모교가 베이징(북경)대와 동경대를 잇는 이른바 「BESETO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대상으로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UC 버클리대 등을 본보기로 삼는 한편, 기타 우수 세계 대학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폐쇄된 우리의 교육시장에서 「국내 1등」으로만 안주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끼리만 경쟁하다보니 1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도 이제는 교육의 질과 연구성과로 승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뉴 밀레니엄의 개방화 시대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지 못하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대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일류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영국에서 8백년 전통의 「옥스브리지(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가 경쟁의 무풍지대에 안주해 온 나머지 오늘날 첨단 과학분야를 비롯한 많은 학문연구에서 개교 40년도 안되는 위력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植)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璫,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사람은 일정한 예측가능성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 가령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으레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누구나 예측한다. 만일 그런 예측과는 달리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의심·당황하게 되고 그들간의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오기 쉽다. 또 가령 어제까지 1천4백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담배를 오늘 살 수 없다면 역시 큰 혼란이 온다. 담배 공급이 돌연 끊기거나 예고도 없이 값이 2천원으로 뛰었다면 사람들은 혼란·불안·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예측가능성이 적은 사회에선 사람들은 불편·불안하고 적응하기가 힘들다. 담배 값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감을 잡기 어렵고 처신과 대응이 어려워진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의 안정감·발전성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정치지도자와 고위층들의 말이 왔다갔다 한다면 그런 사회는 혼란과 불안·불신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경제정책이



예측가능성 없이 살기 어렵다



宋鎮赫
중앙일보 논설고문

자주 바뀐다면 기업으로서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해마다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가 바뀌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과 스트레스는 물론 엄청난 노력소모가 따른다.

이처럼 예측가능성이란 중요한 것이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우리 나라는 어떨까. 그런 조사 통계를 본 일은 없지만 우리의 경우 예측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정치는 늘 여야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하고 경제정책은 자주 혼선·혼미를 거듭하면서 시장원리와 관치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이 높다. 입시제도는 안 바뀌는 해가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신용이 문제다. 대통령부터 내각제니 DJ공조니 하면서 앞뒤 말이 다르고, 야당과는 상생한다고 하다가 서로 말도 안하는 상태로 가곤 한다. 어떤 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부시아버지와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불투명하다. 정치판의 거짓말·一口二言, 이런 것부터 좀 사라져야 우리 사회의 예측가능성도 올라갈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청소년과 인적자원개발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는 지식과 정보혁명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현실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청소년 실업문제, 취업연령문제,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다

”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정부 및 기업체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인력의 수급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 해결방안에 급급하였고, IMF이후 청소년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여 어른에 비해 2배(18%)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

둘째, 청소년 인적자원이 크게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청소년의 취업연령(27.2세)이 다른 주요 선진국(22.1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직업세계로의 진입시기가 늦어져서 청년층의 자원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청년층(15~24세)

의 경제활동 참여율(31.4%)도 매우 저조하였다.

셋째, 학교교육도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이 결여되어 청소년의 삶 및 일과 교육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학교교육의 최종 수요자가 사회의 다양한 기업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내용과 직업 선택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상급학교 진학을 높이는데 머물러 있다.

그런데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청소년 집단이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반인 개화기 때 신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세계 개방의 물꼬를 튼 세대가 바로 청소년세대였으며, 1960~70년대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50년대 교육을 받은 청소년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복무 근로청소년 등 청소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의 주역, 1990년대 세계화 정보화의 기수들이 바로 청소년 N세대였으며, 사실상 이들이 국가발전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20세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며, 앞서 지적한 청소년 실업 문제, 취업연령문제,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

崔忠玉

(75년 師大卒)

한국청소년개발원장
경기대 교수





(주)마성상사 金閔鍾사장

부인·처제·동서·두 조카 모두 동문

“불가능은 없고 노력하면 길이 있다”

『불가능은 없다.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20여년 간 (주)마성상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金閔鍾(71년 藥大卒)동문은 어떠한 망설임 없이 인생의 성공은 이 짧은 두 마디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金동문은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월간지 『Pharma Koreana』 편집장, 서울대동창회 관악무역인회 회장, 前한국무역대리점협회 부회장, 前Ireland수출진흥청 한국주재 무역고문 등의 중책을 맡아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金동문의 어릴 적 꿈은 사실 특종을 쫓아다니는 신문기자였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문리대 졸업생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친척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약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생활력과 도전의식은 대학졸업 후인 제약회사 근무시절부터 엿볼 수 있다. 당시에는 제약회사에 입사하면 주로 연구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金동문은 직접 고객을 상대하며 활동성이 요구되는 영업부 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5년간의 과중한 업무와 팍팍한 일정을 아무 무리 없이 해내던 중 金동문은 문득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로는 자신의 목적과 꿈을 절

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이러한 생각 끝에 金동문은 동창생 중 한 명이 다니던 한국주재 외국무역회사(Marsing Co. Ltd.)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급기야 1980년 회사를 직접 인수, 지금의 (주)마성상사를 출범시킨 것이다.

의약품 원료를 수출입하는 것 외에, 세계적으로 새로 개발된 제품을 우리 나라 제약회사에 소개하며, 역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을 외국에 소개하는 일 등을 다루고 있는 마성상사는 70~80년대 뒤쳐져 있던 제약업을 한 발자국 발전시키는데 크게 일조한 기업으로, 외국에서 이미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무역업체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의 기술과 신제품들을 외국회사에 홍보하는 의미에서 10년 전부터 金동문은 영문 제약잡지인 『Pharma Koreana』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한편 그를 옆에서 조용하게 내조하고 있는 부인 姜英惠(71년 藥大卒)동문은 金동문과 대학 2년부터 사귀어 온

캠퍼스 커플이다. 그 당시 조금은 까다롭다(?)는 약대 여대생들 사이에 그녀의 소박한 매력은 더욱 돋보였다고 金동문은 말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착착 맞는 것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운명이었다고. 졸업할 무렵, 金동문은 『2년 뒤 4월 14일에 결혼할 것』을 선포, 정확히 졸업 2년 뒤 4월 16일(비록 약속한 날짜보다 이를 늦었지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2녀를 두었다.

부인 姜동문과 모든 집안 대소사를 의논한다는 처제 姜美惠(75년

師大卒)동문은 부인과 닮은 점이 많다고 金동문은 말한다. 특히 姜英惠동문과 姜美惠동문은 각각 멋진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 사회생활을 접었다고 한다.

동서 金化坤(77년 工大卒·아스코엔지니어링 사장)동문 또한 金閔鍾동문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것은 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독심이라고 金동문은 동서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마지막으로 金동문은 金化坤동문의 두 자녀에 대해 『어릴 적부터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올해 모교 법대 졸업 예정인 큰 조카(金載恩)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막내 조카(金載林)를 볼 때면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항상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表)



앞줄 金閔鍾·姜英惠동문 내외.



좌로부터 姜美惠·金載恩·金化坤·金載林.



대구·경북 지부

골프모임 「관악회」·청년조직 「청관회」 돋보여

글 : 申景源(87년 人文大卒·한국경제신문 기자)간사

『사회전반의 네트워크와 물결을 동창회에서도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대구·경북지부는 요즘 젊은 동문을 중심으로 동창회 활성화 움직임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게 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모교 출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단합되지 않고 모래알처럼 곁돌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넘어서 전국 최악의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서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부의 운영기관은 이사회와 간사단, 회보편집실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관악회와 청관회가 있다. 이사회에는 회장과 각 단과대학 회장단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관악회는 76년 결성된 골프모임으로 주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친목모임이다. 청관회는 관악캠퍼스로 입학한 75학번 이후의 동문 모임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단과대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만나 유대를 다지고 있다. 청관회는 이미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서고 있는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미 3~4개의 벤처기업을 탄생시

키기도 했다.

대구·경북지부의 역사는 지난 71년부터 시작된다.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를 총동창회란 이름으로 정비해 초대 회장에 金俊成(68년 商大卒·前대구은행장)동문을 선출했다.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마친 75년은 동창회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됐다. 재학생 모임인 학우회를 중심으로 2천여명이 넘는 대구·경북 지역의 동문 명단이 파악됐고, 75년과 76년 연속 「서울대의 밤」을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대의 밤 행사에는 모교의 명망있는 교수들을 초청, 강연회와 음악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도 잠시뿐, 유신시대의 어려운 정치상황으로 일체의 모임을 불허하면서 동창회도 긴 동면에 들어갔다.

이같은 시대분위기에서 76년 골프모임인 관악회가 결성되고, 이후 20여년 동안 吳東洙(43년 京城法專卒·前영남투자금융 회장)·元虎出(56년 商大

卒·前대구투자금융 회장)동문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간신히 동창회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99년 徐德圭(58년 商大卒·前대구은행장)동문이 제4대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동창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기관장 모임으로 이루어지던 신년교례회가 모든 동문으로 확대되면서 매년 1백여명 내외의 동문이 참가해 우

의를 다지고 있다. 또한 동창회 명부가 새롭게 정비되고 회지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청년조직인 청관회도 별도의 회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는 2년 만에 새로운 명부를 발간하고 연 4회 회지 발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부부동반 등반대회와 송년회 행사도 새로 개최할 계획이며, 이사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별 총무들의 모임인 집행위원회를 구성, 동창회 활동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올해 안에 그동안 참여가 저조한 대학원 출신 동문을 위한 별도의 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앞줄 좌로부터 아홉 번째 徐회장, 둘째줄 좌로부터 첫 번째 필자.

「신년교례회」 개최... 힘찬 21세기 기원

金회장 “어려운 民心 달래는 서울대인이 되길”

李총장 “입학처 신설, 훌륭한 졸업생 배출할 터”



좌로부터 趙完圭·尹天柱·李聖秀·李基俊·金在淳·林光洙·李吉女·高柄翊·鮮于仲皓·孫一根·李達雨등문.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B홀에서 각계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金道昶·蔡汝植고문,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鄭哲圭·李聖秀·李達雨·朴晟容·徐廷和·李奭熙·韓斗鎭·趙南煜·金鎮炫·鄭宗澤·李金器·孫京植·李相禹·姜敏求·卞柱仙·金基鏞 부회장, 方孝宣·朴英俊감사,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李晟遠·尹美子·郭守根·金秉順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상임이사인 陸寶根(자연대)·楊銀淑(간호대)·林光洙(공대)·尹勤煥(농대)·李信子(미대)·李璫教(사대)·高炳佑(상대)·李禮植(약대)·金正吉(음

대)·李吉女(의대)·池憲澤(치대)·金圭植(대학원)·禹德和(경대원)등문, 본보 金哲洙·李炯均·林炯斗·南仲九·李慶衡·朴聖姬논설위원, 수원지부 俞東濟회장, 대전·충남지부 吳熙弼회장, ROTC총동문회 洪宗浩회장, 관무회 金閔鍾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모교에서는 尹天柱·高柄翊·趙完圭·鮮于仲皓전임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劉永濟입학처장, 李恩玉간호대 학장, 趙東成경영대 학장, 李敦求농생대 학장, 千文宇약대 학장, 鄭鍾平치대 학장, 李正典환경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

장은 『오늘처럼 즐거운 모임에 동참하지 못한 동문들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말하고 『또한 올적인 오늘의 民心을 우리 서울대인이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올해부터 입학처를 새로 신설하여 학교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입시 정책을 이끌어갈 예정』이라며 『고교 특기생 등 다양한 선발과 함께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특별 순서로 朴世衍(음대 4년)양이 「벌거벗은 서울」이라는 곡의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으며, 21세기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루떡 절단식이 있었다.

蔡汝植(前국회의장)고문의 건배사에 이어 동문들은 준비된 만찬을 들며 서로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각계 동문을 대표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金鎮炫·孫京植·卞柱仙부회장, 洪性大상임이사, 모교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공대동창회 林光洙회장, 사대동창회 李璫教회장, 의대동창회 李吉女회장, 충남·대전지부동창회 吳熙弼회장, 본보 朴聖姬논설위원 등이 새해 인사를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종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表)

金鍾祺동문

특지장학금 5천만원 쾌척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이 金동문(右)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월 6일 인제고등학교 金鍾祺(55년 師大卒)교장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5천만원(1구좌)을 본회에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金동문의 출연금 5천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인재高 출신 모교 재학생 1명에게 평생토록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洪尙郁동문

특지장학금 5천만원 출연



지난 1월 9일 성지출판 洪尙郁(87년 農大卒)사장(사진 右)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5천만원(1구좌)을 본회에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洪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학교법인 상산학원 출신

모교 재학생에게 洪동문의 명의로 2001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洪동문은 그동안 후학들을 위해 본회에 특지장학회 기금 3억원(6구좌)을 출연한 바 있는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의 아들이다.

李元珪동문

기금장학회 1천만원 기부

지난 1월 15일 李元珪(63년 農大卒·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기금장학회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본회에 쾌척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 1천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李동문이 지정한 모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信)

미술작품



「십자가의 길-제9차 3번째 넘어지심」, Mixed Media, 100호, 1996.

金昶洙작

◆작가 약력◆

- 86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 91년 독일 오펜바흐 조형대학 대학원 과정 졸업, 조형미술 석사학위 작품전
- 94년 한일 현대작가전
- 95년 오늘의 한국미술전
- 96년 한국 미술협회전, 한국작가 아리비아전, 통일주제 국제 팩스 지상전
- 98년 현대 일러스트아트전
- 현재 경원대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총동창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 시 : 2001년 3월 16일 (金) 오후 6시 30분
- ◆ 장 소 : 힐튼호텔 1층 컨벤션센터
- ◆ 안 건 : ①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0년도 결산 및 2001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사항
- ◆ 회 비 : 2만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건강을 지킴시다

꾸준한 관리·노력이
당뇨 치료의 지름길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꾸준한 관리로 조절해 가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인 질병이다. 당뇨병 교육을 받고, 열심히 관리하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며, 그럴 때는 완치나 특효라는 단어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민간요법의 속설에 현혹되기 쉽다.

민간요법은 비과학적이고 반의론적이라 생각하면서도, 다른 환자의 경험에 따른 사례나, 친지의 권고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과연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는 것인가? 또는 민간요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또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 및 실험 중에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민간요법이란 아직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을 뜻한다. 왜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을 의사나 병원에서 권하지 않겠는가?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중한 나 자신을 그런 효과 및 부작용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직까지는 민간요법에 관하여 권고해도 좋을만한 정리된 결과가 없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대의학에 비길만한 치료법은 없



金永健(68년 醫大卒)
충남대병원 내과 과장

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요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민간요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동안 해오던 치료를 모두 저버리고 민간요법에만 몰두하며, 잘해오던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포기하거나 약물요법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시행해 나가기 비교적 힘든 식사, 운동, 약물요법을 통해 잘 지켜오던 절제된 습관을 한 순간에 버리고, 마음대로 먹고 즐기는 생활로 돌아감으로써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당뇨병 관리에는 왕도가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진과의 신뢰성 있는 관계를 통하여 당뇨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문제 등을 의논하며, 필요하다면 식습관 및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노력만이 당뇨병 관리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추억의窓

사라져 버린 「눈덮인 문리과대학」
인문·사회·자연대학으로 흩어져

申禹植(57년 文理大卒)前서울신문사 사장·대한언론인회장

「대학의 대학」이라고 불리어지던 모교 문리과대학 본관을 배경으로 한 이 한 장의 사진은 필자에게 추억의 창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해 겨울에도 큰 눈이 내렸다. 마로니에에 만발한 눈꽃은 눈부셨고, 눈발에 폭폭 빠지면서 걸던 캠퍼스 길은 낭만적이었다. 철학을 얘기하고 문학을 담론하던 그 겨울. 사진 속의 이 지점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바로 교문인데,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이란 간판 앞에서 촌스럽게(?) 사진도 찍었다.

이날 사진 속의 세 사람은 많은 시간을 눈으로 뒤덮인 공원에서 보냈다. 어쩌면 그 눈덮인 광경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는지도 모른다.

필자와 함께 서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 가운데가 故 辛順南(53年入)동문으로 TV의 외국영화 번역전문가로 크게 활약했었다. 외국영화가 끝나면 항상 「번역 신순남」이라는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 몇 년 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오른쪽이 모교 인문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李相沃동문이다.

사진 뒷면에는 「1956년 2월 28일(火), 큰 눈, 추가시험」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다. 큰 눈에 흥분해서 추가시험 끝난 기념으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농칠세라 찰칵 찍었을 것이다. 누가 찍었을까? 아마도 당시 캠퍼스에서 자주 만나던 스냅사진사 아저씨가 아니었나 싶다.

굳이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한 것은 그 이후로 「눈덮인 문리과대학」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 동송동 캠퍼스가 멀리 관악산 자락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사만 간 것이 아니라 「문리과대

학」도 사라져 버렸다. 한마디로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의 간판이 없어진 데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으로 토막이 나버린 것이다.

보다 나은 모교의 발전을 위한 단과대학 개편이었겠지만 동송동 캠퍼스에서 머리와 가슴을 키운 우리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학과 학생이 문학강좌에 얼굴을 내밀고, 문학계열 학생이 자연과학 강의를 듣던 리버럴한(?) 분위기, 학제 관계를 긴밀히 하며 공부하던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누렸던가. 무슨 체육대회라도 열리면 「참석을 최저」가 바로 문리과대학이었다. 이것은 반드시 자랑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마로니에가 지켜주던 리버럴한 학풍이 분명 문리과대학에 팽배해 있었다.

끝으로 학과에 따라 다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졸업앨범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도 문리과대학의 「학풍」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좌로부터 필자, 辛順南·李相沃동문.

동 정

수 상

▲李姬鎬(50년) 師大卒·대통령 영부인·本會顧問=지난 1월 15일 「필벽 인터내셔널」 이사회장인 피터 콘 박사로부터 「2000년 올해의 여성상」 트로피를 받음.

▲丘仁煥(54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9일 한국문인협회가 제정한 제37회 한국문학상(소설부문)을 수상함.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12월 9일 힐튼 호텔에서 춘강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제14회 춘강상(여성지도부문)을 수상함.

▲李康淑(61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지난 12월 4일 예총회관에서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2000년도 한국음악상(음악교육부문)을 수상함.

▲柳岸津(65년) 師大卒·모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지난 1월 13일 月灘朴鍾和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제35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함.
▲李憲宰(66년) 法大卒·前 재정경제부 장관)=오는 4월 4일 미국 공공연구재단 「우드로 윌슨 인터내셔널센터」가 수여하는 「우드로 윌슨상」을 받을 예정임.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특임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ASEM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주관방송단장으로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음.

▲尹眞秀(77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월 31일 한국법학원으로 부터 제5회 법학논문상을 받음.

▲金東洙(79년) 音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2월 4일 예총회관에서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함.

▲權魯甲(26기 AMP·前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월 16일 미국 국가문화재단(NCF)이 수여하는 마틴 루터 킹 자유인권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金許男(52년) 法大卒·前국회의원)=최근 열린 함경북도 중앙도민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에 재선임됨.

▲玄永源(54년) 文理大卒·현대

상선 회장)=지난 1월 18일 열린 한국선주협회 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재선임됨.

▲李炳漢(56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東方詩話學會 제2차 국제학술회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됨.

▲李泰柱(56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지난 1월 30일 서울시극단 단장에 임명됨.

▲吳淇坪(57년) 法大卒·前아태평화재단 이사장)=지난 12월 18일 제8대 세종재단 이사장에 취임함.

▲金鎮炫(58년) 文理大卒·문화일보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29일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됨.

▲宋熙星(60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1월 2일 한국물리학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함.

▲李相周(60년) 師大卒·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월 13일 제11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南正鉉(61년) 工大卒·대우엔지니어링 회장)=최근 프랑스 파리근교에서 열린 국제산악연맹 총회에서 4년 임기의 국제이사에 선임됨.

편집주간식

장학사업의 質的 전환 모색해야

대학의 본질적 사명은 연구·교육·봉사 3가지로 요약된다. 연구란 기존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일이다. 교육은 연구하여 찾아낸 사실과 진리를 여러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문화를 계승·전파하는 일이다. 봉사는 연구·교육한 결과를 대중사회에 이바지하게끔 제공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종래의 장학사업방향은 이러한 대학의 사명에 비추어볼 때 교육 내지 연구부문에 편향된 감이 없지 않다. 건전한 민주시민, 양식있는 교양인,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로 대학인을 양성·배출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도 중요하나,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 잘 적용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키워야 한다. 연구·교육은 물론, 봉사가 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학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장학사업이 자리잡아야 한다. 장학의 양적 확충도 중요하나, 추천·선발제도의 보완을 통한 질적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총장=지난 1월 19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임됨.

▲申鐵淳(61년) 師大卒·전북대 총장=지난 1월 19일 열린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鎮高(61년) 商大卒·서울산업대 총장=최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산업대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徐丙喆(63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교수)=지난 1월 17일 임기 3년의 통일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

의원)=지난 12월 14일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제5대 총재에 선출됨.

▲趙倬均(63년) 法大卒·前리빙TV 단장=지난 1월 27일 일요일 서울신문사 사장에 선임됨.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지난 1월 1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함.

▲文明浩(64년) 文理大卒·문화일보 논설주간=지난 1월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에 선임됐으며, 2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金恒經(64년) 法大卒·외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1월 4일

(7면에 계속)

(6면에 이어)

駐뉴욕 총영사에 임명됨.

▲安光燮(64년 法大卒·무역진흥기금관리위원장)=지난 12월 27일 영동대 제2대 총장에 선임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최근 열린 한국 농업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취임함.

▲金亨圭(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최근 한국피아노학회 회장에 취임함.

▲金榮培(6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지난 1월 29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崔圭徹(66년 法大卒·동아일보 편집국장)=지난 1월 29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임됨.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 미학과 교수)=최근 열린 한국미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鄭義容(68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지난 1월 4일駐제네바 대사에 임명됨.

▲洪哲(69년 商大卒·인천대 총장)=지난 2월 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에 취임함.

▲孫承泰(71년 工大卒·감사원 제1국장)=지난 12월 30일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에 임명됨.

▲柳在煥(71년 商大卒·한미은행 종합기획팀장)=지난 1월 15일 한미은행 본부장에 선임됨.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경영대학장)=최근 열린 미국 하버드대 한국 총동창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趙欽源(71년 商大卒·한국기술투자 부사장)=지난 1월 9일 액정표시장치(LCD)의 핵심소재인 편광필름 전문 생산업체(주)에이스디지텍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2월 28일 개최된 고려대 기별교우회인 高岩會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에 재선임됨.

▲姜大亨(72년 法大卒·경찰청 과학수사과장)=지난 1월 10일 경찰청 보안1과장에 임명됨.

▲朴成柱(73년 工大卒·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최근 열린 한국시물레이션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梁精鉉(73년 醫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12월 1일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에 선임됨.

▲金有承(74년 文理大卒·KIST 생체과학연구부장)=지난 12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됨.

▲朴在天(75년 工大卒·아일랜드 러스터 사장)=최근 종합호스팅업체인 호스텍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柳根榮(75년 師大卒·KBS 보



도본부장)=지난 1월 29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됨.

▲李南基(76년 大學院卒·SBS 보도본부장)=지난 1월 29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에 선임됨.

▲田炳憲(77년 社會大卒·대통령 행사조사비서관)=지난 1월 8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됨.

▲高用(77년 法大卒·교육인적자원부 부이사관)=지난 1월 29일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에 임명됨.

▲具寬書(77년 師大卒·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지난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에 임명됨.

▲李鍾瑞(77년 師大卒·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지원국장)=지난 1월 29일 서울대 사무국장에 임명됨.

▲鄭奉根(78년 社會大卒·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기획관)=지난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비서관에 임명됨.

▲金京會(78년 師大卒·충청남도 부교육감)=지난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에 임명됨.

▲金正基(78년 師大卒·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지난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에 임명됨.

▲鄭東勳(78년 師大卒·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담당관)=지난 1월 29일 부산대 사무국장에 임명됨.

▲邊昌律(79년 社會大卒·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장)=지난 1월 29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에 임명됨.

▲徐承鎮(79년 農大卒·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지난 1월 1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임명됨.

▲禹亨植(79년 師大卒·인천광역시 부교육감)=지난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에 임명됨.

▲金重確(80년 法大卒·관악경찰서장)=지난 1월 10일 경찰청 외사2담당관에 임명됨.

▲徐永昊(80년 法大卒·前경남 합천경찰서장)=지난 1월 10일 관악경찰서장에 임명됨.

▲金正範(80년 師大卒·前탑코 소프트웨어 사장)=지난 1월 29일 미국계 아리바코리아 지사장에 선임됨.

▲金弘準(81년 社會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영화감독)=올해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Pi-Fan) 집행위원장에 위촉됨.

▲金相奐(81년 法大卒·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지난 1월

10일 도봉경찰서장에 임명됨.

▲金相賢(27기 ACAD·前국회의원·ACAD同窓會長)=최근 열린 대한산악연맹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15대 회장에 재선임됨.

▲孫日祚(29기 ACAD·前서울지방노동청장)=지난 1월 22일 학교법인 기능대 제2대 이사장에 추대됨.

▲朴宰永(46기 ACAD·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지난 1월 26일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임명됨.

행사·출간

▲姜錫圭(50년 工大卒·호서대 명예총장)=지난 1월 16일 국제청소년센터 코스모폴리탄홀에서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총회를 개최함.

▲鄭然世(57년 工大卒·海濱會 회장)=지난 1월 16일 해항회 사무실에서 역대 해운항만청장을 비롯한 해운항만청 출신 회원을 초청해 신년교례회를 가짐.

▲李吉女(57년 醫大卒·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지난 1월 29일~2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01년도 KAMA(미주한인의사협회) 학술대회에 참석, 국내외 의료인간의 우의와 학술교류증진을 강조함.

▲李璫教(59년 師大卒·한국방송통신대 총장·師大同窓會長)=지난 1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 안산시학습관 개관식을 가짐.

▲金熙中(63년 藥大卒·대한약사회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지난 1월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약학정보 창립 기념식을 가짐.

▲司空壹(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1일 롯데호텔에서 케네스 커티스 골드먼 삭스 부회장을 초청, 「2001년 미국·일본 경제와

아시아」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짐.

▲金忠燮(65년 藥大卒·한국화학연구원장)=지난 1월 28일~2월 4일 독일 바커사 및 KIST 독일지사 등을 방문, 유럽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을 협의함.

▲李承培(66년 工大卒·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지난 1월 30일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 左承喜원장을 초청, 「위기경제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1월 16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4백여명의 환경인사를 초청, 「2001 새출발, 환경인 모임」 행사를 가짐.

▲咸基善(67년 保大院卒·한서대 총장)=지난 1월 29일~2월 2일 일본 오비린대와 교린대를 방문,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교류방안 등을 협의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 회장)=지난 1월 17일 서초동 인사관리회관에서 「분규 없는 예방적 노사관계관리」에 대한 강좌를 개최함.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01년 농업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는 「농업전망 2001 발표대회」를 개최함.

▲李廷植(70년 工大卒·국토연구원장·環大院同窓會長)=지난 1월 2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와 공동으로 새 주소 부여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가짐.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 이사장)=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저작권관리센터(CCC)를 방문, 양 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함.

▲都明正(73년 行大院卒·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지난 1월 24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및 노인정에 7천 7백여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전달함.

▲金明坤(76년 師大卒·국립극장장)=지난 12월 1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극장 50년사」와 「국립극단 50년

(8면에 계속)

陳稔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임명 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陳稔

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재정부 陳稔(63년 商大卒)장관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상지대 韓完相(60년 文理大卒)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陳부총리는 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후 駐영국 대사관 참사, 해운항만청장, 재무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韓完相

장관, 기아그룹 회장,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역임했다.

韓부총리는 70년 모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민주화 운동으로 두 차례 해직과 복직을 거듭했으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종합유선방송위원장, 한국사회문화연구원장,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變)

(7면에 이어)

사」출판기념회를 가짐.

▲金恒默(76년 大學院卒·부산대 교수)=지난 1월 17일 미국 예일대의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국의 공룡연구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 협의차 출국함.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冠岳會理事)=지난 1월 3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클럽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가짐.

▲梁浩一(76년 環大院入·한양대 교수·서울디자인학회장)=지난 1월 30일 인도 뉴델리 국립간디예술센터에서 「아시아적 산업디자인」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짐.

▲朴春培(79년 環大院卒·동광주택산업 대표)=지난 1월 30일 중앙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鄭恩美(85년 美大卒·명지대 강사)=지난 1월 29일~2월 6일 갤러리 우덕에서 「Secret Garden 2001 -나무님」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짐.

▲李昌魯(88년 工大卒·한국기술투자 벤처투자 심사역)=최근 미국 금융위험관리사(FRM) 시험에 합격함.

▲金民錫(89년 社會大卒·국회의원)=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함.

▲이형민(90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지난 2월 1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

아노 독주회를 열어 스카를라티, 라벨,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임.

▲姜聖模(17기 AMP·린나이코리아 회장·한정연 이사장)=지난 1월 13일 린나이회관에서 한국정치발전연구회 신년하례회를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1월 27일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포럼 동계세미나에 참석, 러시아 이르쿠츠크 천연가스배관(PNG)사업 등에 대해 협의함.

▲崔烈坤(6기 ACAD·前서울시교육감·成鐸會長)=지난 1월 3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성균관대신문 동인 모임인 성탁회 정기총회를 개최함.

(정리=安興變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박준영 군·노영주(99년 醫大卒)양=2월 17일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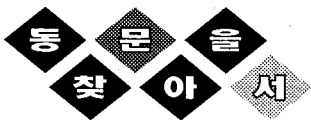
*박원균(98년 師大卒)군·최정현 양=2월 17일 14시.

*김상욱(93년 師大卒)군·박진옥 양=2월 24일 14시.

*김세영(98년 工大卒)군·김선아 양=2월 25일 12시 30분.

*박성균(00년 保大院卒)군·조윤정 양=3월 3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대한결핵협회 洪永杓회장

“결핵은 방심하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 12월 6일 大韓結核協會 대의원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선출된 洪永杓(58년 醫大卒)동문을 만나 협회의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결핵의 전염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전염성 환자의 빠른 발견과 발견된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내 결핵환자가 많은 편인지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감염되기도 합니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약 2주가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핵을 예방하려면 출생 후 가능한 한 결핵예방접종(BCG)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결핵환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은 수준입니다. 몇 해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고실업률,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의 점차적인 증가 등의 요소가 가세함으로써 결핵이 다시 만연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핵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결핵협회는 지난 1953년 법정 3종 전염병인 결핵을 퇴치할 목적으로 창립된 민간단체입니다. 그 동안 본부 산하에 결핵연구원과 12개 시·도 지부, 10



개 복심자 의원을 두어 계몽지도 사업을 비롯한 엑스선 검진, 결핵균 검사, 환자 치료 등 결핵의 예방과 발견 및 진료 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제교류, 조사 평가, 요원 훈련, 기술지원, 학술 연구 등 전문적인 사업을 전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20여 대의 이동 엑스선 검진차량이 농어촌 취약지구와 도시 빈민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보건전문지 「보건세계」를 발행, 결핵에 대한 올바른 예방, 치료 지식을 보급하고, 결핵퇴치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해에는 북한 결핵퇴치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결핵연구원내에 결핵정보감시센터(KTBS)를 설치해 전국의 결핵환자 정보를 수

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3년의 임기동안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운동 글짓기 공모, 금연운동 등 그 동안 펼쳐온 계몽지도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는 한편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핵이외의 다른 신규 사업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보건소의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협조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기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문들에게 한 말씀.

『결핵은 이제 개인만의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결핵은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심하면 다시금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결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물론 관련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洪회장은 모교 졸업후 국립마산병원, 인천 적십자 결핵요양병원, 을지병원 등을 거쳐 77년 결핵연구원에 들어가 83년부터 15년간 결핵연구원장으로 봉직했다. 지난 98년 6월에 정년퇴직한 후 2년 6개월 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 단기자문관 자격으로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피지, 제네바 본부, 마살군도공화국, 브루나이왕국, 필리핀 등지를 다니면서 결핵관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變)

모교 본부 각 처·실 및 (재)발전기금 금년도 청사진

모교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근 「뉴 밀레니엄 비전과 전략」이란 새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한 모교의 장기발전 계획을 중추적으로 추진해나갈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실, 입학처, 대외교류처 및 재단법인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에 본회에서 각 처·실 및 (재)발전기금의 모교 발전을 위한 올해의 계획사항을 들어보았다. (단, 柳佑益교무처장과 金基英학생처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교무처와 학생처의 향후 계획은 게재하지 못함)

李秉基(74년 工大卒) 연구처장



21세기를 여는 2001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온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대학교가 일관성 있게 지향해 온 장래발전 방향은 서울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에 있어서 연구가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구처장에 부임하면서 몇몇 가지 질문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란 무엇인가」하는 것입

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교육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산업 및 사회봉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지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연구중심대학 발전방향과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학내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설치·유치·

「BK 21」 사업 관련된 교내 15개 사업단 지원

운영과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맥이 잡히는 대로, 이를 토대 삼아 서울대학교의 연구행정 업무방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2001학년도 연구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뇌

한국(Brain Korea)21 사업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내 15개 사업단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2년 중간 지점에서의 점검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구비 관리에 관련하여 중앙관리를 더욱 확대하고 연구비 관리기관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소유권, 연구비 오버헤드 등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표준/장려 계약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

하고, 우수연구에 관한 포상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공인 조성에 따른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내 벤처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규명하고 벤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뒷받침하여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을 계기로 연구소들의 위상을 재정리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지원 방향이 정립되게 되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들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교수님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세기는 서울대학교가 월드클래스 대학으로 성큼 성장하게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연구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장차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서울대에서 나오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들이 서울대에서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울대는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처를 비롯한 서울대의 모든 행정부서는 협심 노력할 것입니다.

劉永濟(74년 工大卒) 입학처장



모교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입학 제도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입학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 1월 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교무처 입학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입학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입학처에서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업은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새로운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인적인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력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학생의 인성, 능력, 적성 등에 대한 추천인의 평가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한 교수들의 평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우수한

다양한 전형방법 도입 ... 합리적 입시제도 정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전형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교육적 보상이라는 의의를 넘어 지역간, 계층 집단간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 해소해 나가고자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등 새로운 전형을 도입하였습니다.

입학처의 전문 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국내외 입학 제도 또는 입시와 관련된 각

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리 대학의 안정적인 합리적인 신입생 선발 제도의 정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의 대국민 홍보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업무입니다. 새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수험생들이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 제도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새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는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만큼 중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학처는 이 업무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모교를 지원하는 학생뿐 아니라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전공 및 진로 상담지원 업무입니다. 새로운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는 입학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아울러 요구합니다.

특히 모집단위를 광역화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입학 후 학생들이 전공 분야 및 진로의 선택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공 및 진로에 관한 상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인해 과거의 계열별 모집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사 지도 업무는 물론 수험생들에게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할 전문인력과 전달 기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입학처는 수험생과 신입생 지도에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입학처는 이러한 대학 입학 업무뿐 아니라 학사 편입학, 대학원 입학 등 모교의 각종 입학 업무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교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학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세계 정상급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새로운 문명 창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朴吾銖(75년 商大卒) 기획실장



서울대의 21세기 비전은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World Class 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입니다. 세계화된

대학으로서 학문의 우월성과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사회봉

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은 이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1년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

2011)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학발전계획 발표에 따른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의 자

율과 책임이 강조될 수 있는 대학 운영시스템 구축과 행정체제의 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회계 제도의 도입, 재무·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대학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캠퍼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캠퍼스 환경의 실현과 유지를 위한 대

「장기발전계획」 수립해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

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캠퍼스 단지 계획을 마련할 것입

니다. 특히 「BK 21」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한 것이니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캠퍼스 발전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바람직한 서울대 문화창달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동아시아의 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의 Identity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계획들은 대학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4만 동문들께서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고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泰鎬(75년 商大卒) 대외교류처장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들이 지식기

반사회의 구축을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우수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제화와 관련해 서울대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외국의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심지어 국내 주요 대학과 비교해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 규모, 교수와 학생의 국제교류, 서울대생의 해외학사제도 등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해 말 지금까지 국제업무 담당해 온 국제교류센터를 대외교류처로 승격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조직개편에는 서울대의 국제화를 보다 체계적으

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내기관과의 교류 및 서울대학교의 대외홍보 등을 강화하겠다는 대학본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대외교류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 연구, 행정 및 서비스 등 대학의 핵심기능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자체의 변화를 선도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대외교류처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골고루 참여

외국대학의 학점 이수 프로그램 개발·추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국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학본부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국제화에 대한 철학, 중요성, 의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과 내용이 국제화되어야 하며 국제화 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학생, 직원들에게 '인센티

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외교류처의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실력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나아가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들을 선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국제화가 학교 전체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원)에서 한 명씩의 대표교수들을 선발해 대외교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제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 4년 동안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2004년까지 한 학년에 5%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대의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의욕이 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 행정, 문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2004년까지 전체학생의 5%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기숙사, 문화생활,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외교류처는 국제교류업무 외에도 국내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 및 해외 동창회와의 교류사업 지원, 발전기금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일과 대외교류처의 웹사이트 개발·관리, 외국인 학생·외국인 교수들의 관련자료 수집·관리 등도 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외교류처는 대학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심기구로 뿐 아니라 교육 및 연구기관, 행정 및 서비스기관이 다같이 함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 조정, 원활화,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외교류처는 금년에 서울대 국제화를 위해 몇 가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학사프로그램 확대, 교수 및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연구프로그램 개발, 특정 테마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하계 계절과정 신설, 동경대·북경대·베트남대와의 공동협력 강화, 직원의 해외연수 등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守根(77년 經營大卒) 발전기금 상임이사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재단 설립 이후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에 힘입어 많은 재원을 조달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했으며 재산의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21세기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기금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문이나 학부모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고 출연자와의 관계를 철저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발전기금은 소액을 출연한 개인에 대해서는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 출연자에 대해서도 대학의 소식 등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한 기금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기금출연자의 높은 뜻을 계속 기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이나

부속기관들의 기금 모금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금 모금은 발전기금의 독자적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각 단과대학이나 기관이 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단과대학 동창회들은 물론 여러 작은 동문모임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전기금

넷째로 발전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문조직으로 구성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기존의 발전기금 업무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이었으나 최근에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사업과 TEPS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기금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 내의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함께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

다섯째로 발전기금은 위와 같은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업무와 인적자원을 개선하는 등 발전기금의 인프라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출연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동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재단업무를 전산화하며, 기존의 직원을 재교육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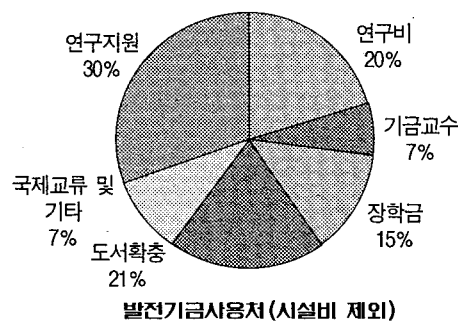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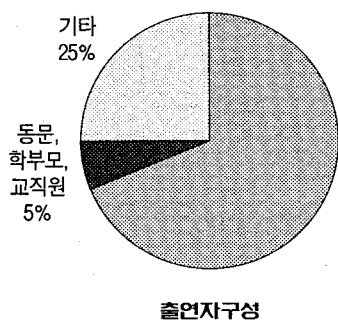
동창회와 연계 강화로 개인 대상 모금 늘릴 터

에 대한 일차적인 후원자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므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동문들의 네트워크인 동창회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발전기금은 대학과 동문들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며 동창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발전기금 창립 10주년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연구, 교육, 시설, 국제교류 등 학교발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는 분께는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해드립니다.

1. 시설물을 기증하실 경우에는 지정하시는 건물명을 사용하며, 이를 건물외곽의 구조물에 각인하여 영구히 보존합니다.
2. 일천만원이상 출연하시는 분께는 다음과 같이 예우합니다.
 - 출연하시는 분의 희망에 따라 지정해주시는 명칭으로 기금명칭을 부여하고 특정기금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 감사패를 증정하며 대학본부 입구에 출연자 명패를 설치합니다.
 - 서울대소식 및 재단소식지를 송부,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3.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입생 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자

徐南錫(77년 農大卒)(주)사니 상무



지난 1968년 신설되어 금년 2월이면 30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식품공학과는 현재 9백여명의 동문들이 학교, 산업체, 행정기관 등의 각 식품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여년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뭔가 일을 담당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문벌의 주인이 되었던 주인공들이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그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느낀다.

식품공학과 동창회장을 맡으며 20여년 만에 찾은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다. 학생들의 보금자리이며, 추억의 산실이었던 기숙사는 온데간데없고, 강의실과 콘서트 막사만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내용의 게시물을 읽으면서 30여년전의 젊은 세대와 오늘날의 젊은 세대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환경과 생각도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낭만과 열정보다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대책마련이 더 절실히 보였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동창회를 꾸려나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 이유는 「Home Coming Day」라 하여 초청장을 받고는 몇 차례 참석할 때마다 동문들이

“
「홈커밍 데이」라 하여
초청받아 참석할 때마다
동문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
“
신입생 시절 술잔을
앞에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열정을
간직하고 나가자

”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매번 들었기 때문이다.

식품공학과 동창회는 이제 겨우 30회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역사도 짧고, 동문들이 아직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작다. 그러나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동문들의 관심과 열정이다. 30여년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어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저녁 무렵, 일본의 어느 농촌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한 미술학도가 과수원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때는 수확을 앞둔 가을철이라 과수원에는 사과가 빨갭게 익어가고 있었고, 석양 무렵이라 서쪽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한다. 과수원 길을 거닐던 이 학도는 저녁노을의 붉은 빛이 빨갭게 익어 가는 사과 위에서 반사되는 것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았다. 한참을 멈추어 섰던 이 젊은 미술학도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이 매료되었던 그 빛과 똑같은 색깔을 화폭에 옮기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물감을 혼합하며 그림에 열중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이 매료되었던 그때의 그

빛과 똑같은 색깔을 화폭에 담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은 너무도 흘러 그 젊은 학도는 이미 반백의 화가로 변한 뒤였다고 한다. 만약 이 젊은 학도에게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없었다면 긴 시간의 노력도, 아름다운 색깔의 재현도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가끔 동창회보에 후배 사랑의 손길이늘어가고 있으며, 몇몇 동문들이 특지장학회를 설립, 특지장학금 구좌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럴 때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며 우리 식품공학과 동문 중에는 이러한 열정을 가진 동문이 언제 탄생할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본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총동창회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후배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우리 모두 신입생이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술잔을 앞에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열정을 간직하고 나가자. 그리하면 우리도 머지 않아 다른 동문들의 부러움과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며...

엘리트의 참여가 절실한 장애인 복지사업

金彥娥(89년 社會大卒)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임연구원



서울대들은 엘리트라고 자처할 수 있다. 가장 우수한 소수의 인재들이 선별되어 서울대를 들어온다는 점이 그러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한 많은 서울대 출신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학업성적이 타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첨언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울대들이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타당한가 아닌가의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정치, 경제, 경영, 문화, 예술, 첨단과학분야 등 아무래도 엘리트의 두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이와 더불어 리더십과 뛰어난 감성을 필요로 하는 곳(서울대들 가운데는 탁월한 예술인도 많다), 밝고 환한 이미지를 주는 곳,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한마디로 잘 나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본인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분야를 맡고 있다. 대우가 관찮으며 근무환경도 우수해 이런 면에서는 행운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내가 다루는 일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고 쉽

“
서울대를 다녔다는
사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
“
좀 더 독보적인 존재,
개척자가 되고 싶다면
보다 척박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

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 다양한 일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다루는 일이 어디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는가? 필자가 하는 일을 처음 듣는 이들은 「아,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솔직히 어떨 때 이러한 칭찬이 빈발처럼 들린다. 직업으로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나 소명의식 같은 것은 큰 위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이들의 소외감과 좌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해야 하고, 장애인의 패배감을 극복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줘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서 요즘은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는 것,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한 곳이다.

한편 필자는 이 분야에서 9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서울대를 다녔다는 사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

은 「엘리트」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가끔 사람들은 「당신은 엘리트에 속하니까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겨달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며 책임의식도 느낀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 없나 하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지만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의 재활 분야는 치밀한 사업수완이 필요한 영역이며,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 정치인이거나 기업주들이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 환원 사업을 더불어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 사업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좀 더 독보적인 존재, 개척자가 되고 싶다면, 보다 척박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서울대들의 참여가 신선하게 돋보일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하고 싶다.

동문 5명이 체인식 안과 개원

吳世梧·宋萬成·崔容碩·李圭勳·康龍弘동문

맑은 눈, 건강한 눈,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자 바람이다. 이러한 소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동문 5명이 뭉쳤다.

吳世梧(85년 醫大卒)·宋萬成(86년 醫大卒)·崔容碩(88년 醫大卒)·李圭勳(89년 醫大卒)·康龍弘(90년 醫大卒)동문이 함께 의기투합해 서울대인 최초로 체인식 안과인 「오·세·오 안과(www.ose-oeeye.com)」를 개원한 것이다.

「오·세·오 안과」라는 체인식 안과의 토대를 마련한 선봉장은 바로 가장 만형 격인 吳世梧동문.

97년 이대 입구 부근에 「예인안과」를 개원한 吳동문은 기존 안과와는 차별적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체인식 안과의 도입이다. 그 후 마음과 뜻이 맞는 후배들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지금의 「오·세·오 안과」를 개원한 것이다.

한편 「오·세·오 안과」라는 명칭에 관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오·세·오 안과」라는 이름에 내포된 뜻은 바로 모교 출신 안과 전문의 5명이 전국에 다섯 곳 이상의 관철은 아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현재 강남과 압구정, 이대 입구에 개원을 했으며, 앞으로 두 곳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강남점에는 현재 2명의 동문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그중 吳世梧동문은 지난 92년부터 97년 12

월까지 충북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진력해 온 인물이다. 또한 康龍弘동문은 전주병원에서 안과 과장을 역임한 안과 전문의이다.

압구정점을 책임지고 있는 동문 2명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宋萬成동문은 중앙길병원 안과 과장 및 가천의대 교수로 활동했으며, 李圭勳동문은 가천의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 지난 99년 「오·세·오 안과」에 합류했다.

이대 입구점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崔容碩동문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충북대 의대 교수로 몸담으면서 후학양성과 학계 발전에 힘써오다 지난 99년 7월 「오·세·오 안과」에 몸담게 됐다.

「오·세·오 안과」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시스템은, 강남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만약 신촌에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존의 진료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오 안과」는

간단한 질환과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수준의 전체적인 안질환에 대한 치료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각 동문의 전공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이에 보다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환자들은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개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와 빠른 진료 순서 등은 「오·세·오 안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오·세·오 안과」의 다섯 동문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베풀는, 봉사하는 참된 의료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강남점 : 593-5350, 압구정점 : 517-5350, 이대 입구점 : 702-5355) (信)



좌로부터 崔容碩·康龍弘·吳世梧·宋萬成·李圭勳동문



⑤⑤ (주) 시큐어소프트

98년 설립, 국내 정보보안분야의 선두주자

업계 최초 침입차단시스템 「수호신」 개발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정보의 공유 및 개방성에 대한 이점과 더불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해킹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의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탄생한 기업이 바로 (주)시큐어소프트(www.securesoft.co.kr)이다.

1998년 설립된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99년 매출액 대비 316% 성장한 2백35억원에 순수익 30억원을 창출한 국내 정보보안분야의 1세대이자 선두주자이다.

해외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대부분 진출해 있을 당시 시큐어소프트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침입차단시스템인 「수호신」을 개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계 최초로 K4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시큐어소프트는 국내 보안 시장에 일대 변혁을 이끌었으며, 특히 해외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국내 네트워크 보안 제품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또한 시큐어소프트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상장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증권사로부터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손정의 펀드 1호, 미국의 캐피털 인터내셔널, 영국계 투자그룹 애들란티스, IMM(투자당시 지오창업투자) 등으로부터 3천만달러의 외자 유치를 일궈냈다. 이는 시큐어소프트의 성장성과 비전 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계기라 할 수 있



金弘善 사장

다.

金弘善(83년 工大卒) 사장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자세로 시큐어소프트

를 진두지휘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안겨줬다.

보안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보안솔루션에서부터 보안컨설팅, 보안서비스, 관제센터,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큐어소프트는 A to Z 통합보안전문회사로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 등에 완벽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큐어소프트는 국내 40% 이상의 시장을 점유(국내 시장점유율 1위)하고 있으며, 1천4백개 이상되는 고객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침입차단시스템(수호신 Firewall), 무회공격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침입차단시스템(수호신 IDS), 전자상거래에서 꼭 필요한 PKI(공

개키기반구조) 솔루션인 시큐어Cert, 무선인터넷 보안솔루션(WPKI솔루션)인 시큐어Mobile, 기업의 보안진단·분석·평가서비스를 해주는 보안컨설팅서비스 등을 개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IDC, ASP 등의 원격보안 취약점 분석, 로그백업 및 복구 등의 보안통합 관리서비스인 관제서비스, 시큐어소프트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안의 기술력 진보와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R&D와 기술지원 인력이 직원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시큐어소프트는 이를 바탕으로 97년 「수호신 Firewall」로 신 소프트웨어 상품 대상을 수상했으며, 99년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기술개발부문 최우수상 수상, 벤처기업 대상 산업포장 등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는 2000년 인터넷 기업상 기술공로부문으로 선정되어 정보통신부 장관상,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시큐어소프트가 정보보안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제도가 그 중요핵심이다. 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시큐어소프트는 이와 더불어 생명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백만원의 의료보험 지급, 지방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개인 여가 생활을 위한 동호회(게임동아리, 레포츠, 축구 등)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e-Business 통합보안전문회사인 시큐어소프트는 현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보안업체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信)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침입차단시스템 「수호신」

부산 지부

여성 부회장에 羅光子동문 선임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奎)는 지난 1월 18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에서 2001년도 「신년하례회 및 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 여성 부회장에 부산대 羅光子(64년

音大卒)교수를 새로 선임했다.

한편 논의를 통해 10월경 서울대 동문가족 등산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2월경 부부동반으로 참가하는 「서울대의 밤」 행사를 열기로 협의했다.

대전·충남 지부

申洵雨동문에게 축하패 전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熙弼)는 지난 1월 10일 유성관광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제31차 정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만학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

득한 申洵雨(74년 行大院卒)산림청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부천 지부

신입회원 상견례

부천지부동창회(회장 白承權)

는 최근 부천시 소재 중동숯불갈비 식당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2000년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吳錫云(66년 師大卒)부천교육장, 元惠榮(71년 師大入)부천시장, 李晟補(79년 法大卒)부천지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수원 지부

동문 친교의 시간

수원지부동창회(회장 俞東濬)는 최근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0년도 회계보고 및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동문간의 만남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鳳國 명예교수, 동수원병원 邊尙鉉이사장, 沈載德수원시장, 許文道 前 통일부 장관, 李載俊변호사, 모교 李敎求농생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信>

시카고 지부

曹大鉉회장 선출

시카고지부동창회(회장 金正周)는 지난 11월 25일 래디슨호텔에서 1백2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만찬에 이어 진행된 임원 개선에서 신임 회장에 曹大鉉(61년 工大卒)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에 韓在殷(65년 醫大卒)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朴 琰(70년 醫大卒)·姜永國(75년 獸醫大卒)동문, 감사에 宋舜英(56년 文理大卒)·金賢玉(71년 文理大卒) 동문을 선임했다.

공과대학

5월 20일 등산대회 열기로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旭陳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馬景錫·明泰鉉·鄭哲圭·李達雨·孔大植동문을 비롯해 모교 李基俊총장, 李長茂학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나라 기술발전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새해 덕담을 나누며 밝은 미래를 기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李基俊총장은 『모교가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고, 그 졸업생 중에서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야 모교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오는 4월과 10월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0일 오전 9시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올해 상반기중에 1~2개의 해외지부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 吳明 사장이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최고경영자과정

제50기 수료기념 행사 가저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월 16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각계 동문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기 수료기념 행사 및 2001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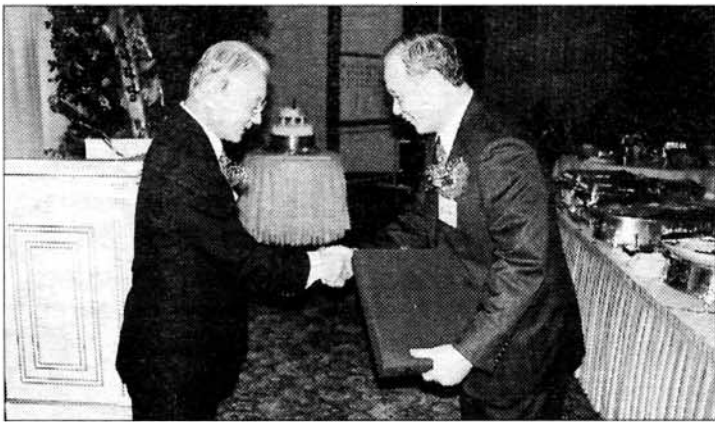
1부 행사에서 재정경제부 李根京(75년 商大卒)차관보를 초청, 「2001년 경제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자인 모교 尹

桂燮교수를 비롯해 전경련 孫炳斗(64년 商大卒)상근부회장, 李允鎬LG경제연구원장, 前매일경제신문 裴秉休주필이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관련 사항들에 대해 토의를 나눴다.

이어 2부 행사에서 올해 AMP과정을 수료하는 74명의 50기 동문들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表>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전달



裴회장이尹永哲(右)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裴命仁)는 지난 1월 16일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본회 金道昶고문,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奭熙부회장, 李淳鍾AIP동창회장을 비롯해 李漢東국무총리, 외교통상부 李廷彬장관, 朴舜用검찰총장, KBS 李世中이사장 등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姜信旭·李康國·李揆弘·朴在允·孫智烈·姜哲求·金大煥·申明均·金龍潭동문(이상 사법부), 尹永哲·權誠·金曉鍾·金京一·宋寅準·朴容相동문(이상 헌법재판소) 등이 영전 축하패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申國煥·田允喆동문이, 검찰에서는 任彙潤·韓富煥동문이 축하패를 받았다.

또한 낙산장학회에서 모교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에게 1천4백9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이명

호(법대 4년)군이 재학생들을 대표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이어裴회장은 인사말에서『21세기는 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유와 아량으로 서로相生하는 시대』라고 말하고『우리 법대 동문들이야말로 조국에 무한책임을 느끼고 국가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모교 金東熙학장은『현재 법대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느 때보다 대단하다』며『이러한 열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李漢東동문의 인사말과 함께 건배사가 있었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올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裴회장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날 5천만원을 쾌척했다.

相賢)는 지난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각계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경품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문들은 서로의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삼락회 崔烈坤회장, 한국전산원 朴成得이사장, 한국경영건설협회 金益永부회장, 한솔그룹 南正祐부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洪世基이사장, 金貞淑국회의원, 스크린영아사 李珍沆회장, 대양전척(주) 俞鎮錫사장, 申洵雨산림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張基哲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임원 수첩 발간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12월 8일 강남 소재 삼원가든에서 각 기별회장 및 간사장 등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2000년도 동창회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도 계획을 새로이 작성했다. 또한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골프회와 모터리클럽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새로 발간된 동창회 임원 수첩을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배포했다.

신문대학원

경제 세미나 가져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지난 12월 11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李濟薰(중앙일보 부사장)·金貽煥(아남그룹 부회장)·安瑛燮(명지대 교수)·南善顯(KBS청주방송 총국장)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히 한국무역협회 趙健鎬(66년 法大卒)상근부회장이「내년도 세계경제 여건과 수출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동문들의 열띤 찬사를 받았다.

법대 26회

宋柱煥회장 선출

법대26동기회(회장 梁東信)는 최근 역삼동 소재「아세아도원」식당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宋柱煥(변호사) 동문(사진)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表)



미술대학

「인터넷 동문전」에 관해 논의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월 27일 신사동 소재 야쿠르트빌딩 14층 제우스에서 李時容·李鶴淑·田錫津·金貞淑·沈載榮·朴淑姬·曹泳哲·洪貞姬·金春玉·劉仁洙·李容德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가졌다.

李회장은 인사말에서『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자』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2001년 인터넷 동문전」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동창회보 제작에 관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ROTC동문회

愼鏞慶교수 특별 강연 펼쳐



ROTC동문회(회장 洪宗浩)는 지난 1월 16일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洪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어느 분야, 어느 곳에 서든지 타의 모범이 되는 동문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어 金一燮(69년 商大卒·한

국회계연구원장·관악회 이사) 동문이 본회 金在淳회장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본회가 준비한 동창회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모교 愼鏞慶교수가「독도와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 전원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간호대학

화합의 한마당 신년회 개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는 지난 1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학생휴게실에서 洪麗信명예교수 등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李明善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楊회장은 뱀의 지혜와 슬기로 더욱 화합할 것을 당부했으며, 모교 李恩玉학장은 간호대 건물준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동문들을 대표해 金花中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간호계 발전뿐만 아니라, 국회의 교육 위원으로서 한국교육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피력, 참석한 동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하떡절단식과 더불어 참석한 동문들은 서로의 발전과 우의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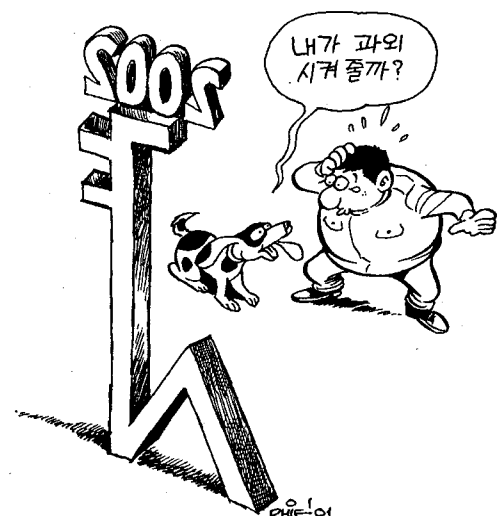
국가정책과정

신년인사회 열어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

만평

李元馥



2002年, 더 좁아진 門

영어영문학과

「자랑스런 동문」 시상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申禹植)는 최근 조선포털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영문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모교 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 孫鳳鎬교수, 許雲那의원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했다.

마로니에회

부부동반 모임 가져

문리대 64학번 동기회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최근 하얏트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송년모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張錫準차관, 기획예산처 金炳日차관, 새천년준비위원회 辛鉉雄상임위원장, 중앙일보 卞相根이사, 성균관대 李漢龜인문대학장, 金英吉화타한의원장, 영남대 金永文교수, 국사편찬위원회 高惠玲교육연구관, 외국어대 崔甲洵교수, MBC 柳熙根홍보심의국장, 沈洋弘텔런트, 농협중앙회 許璲사무처장, 한진건설 金泰典전무, 한국증권금융 金毅宗상무, SBS 宋錫亨편성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 등을 펼치며 2000년 한해의 회포를 풀었다.

국어교육과

장학기금 모금 논의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恩相)는 지난 1월 3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모교 李應百 명예교수, 세계시인 시낭송 문학연구회 朴英子회장 및 禹寅燮 前서경대 교수의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가진 총회에서 2001년도 사업계획보고 및 장학기금 모금에 관한 논의를 했다.

국어국문학과

총회서 장학금 수여

국어국문학과동창회(회장 李種奭)는 지난 1월 2일 뉴국제호텔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는 성적이 우수한 모교 박사과정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제어계측공학과

매년 10월 총회열기로

제어계측공학과동창회(회장 李旻武)는 최근 모교 동원생활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2001년도 동창회 정기총회에 관한 논의를 통해 매년 10월 넷째주 일요일에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응용화학부

모교 지원기금 3천만원 출연



응용화학부동창회(회장 林武炫)는 최근 모교 공대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정기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동문 및 가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는 모교에 기술잡지 보조금 2백50만원을 비롯해 세미나 기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鄭廣燮총무간사의 진행으로 동창회 사업계획과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

었으며, 동창회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3식당에서 개최된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개인 장기자랑, 가족 춤 대결 등의 다양한 게임을 펼쳐, 참석한 동문 및 동문가족들은 서로간의 정과 훈훈한 가족애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공대 실험실을 견학하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정치·외교학과

차기회장에 朴鍾圭동문 뽑아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具範謨)는 지난 1월 17일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具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辛巳年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바라며, 젊고 패기있는 동창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具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차기 회장에 朴鍾圭(61년卒·KSS해운회장)동문을 선출했다.

교육학과

尹正一회장 만장일치 재선임



교육학과동창회(회장 尹正一)는 최근 모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열었다.

모교 鄭範謨명예교수, 이화여

대 劉奉鎬명예교수 등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尹회장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사회교육과

동문 3명에게 공로패 증정



사회교육과동창회(회장 曹道根)는 지난 1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2000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리모두복지회 金俊文회장, (주)청인 韓都淵원장, 前서울사대부고 曹圭三교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증정했다.

식품공학과

신임 회장에 洪德杓동문 선임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徐南錫)는 최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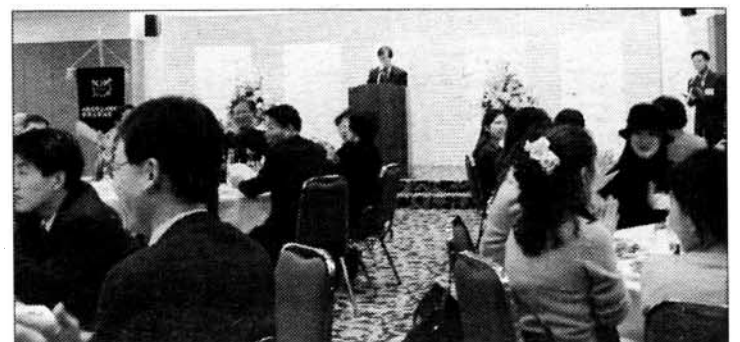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를 위해 애써온 文東峻(MGS KOREA 사장)동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

으며, 동창회 홈페이지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洪德杓(명륜골프클럽 대표)동문을 선출했다.

불어교육과

신임 회장에 劉秀烈동문 선출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仁衡)는 지난 1월 6일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부패」에서 동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劉秀烈(64년卒·MBC제작본부장)동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李康富(68년卒·네오로직스 사장)·朴仁子(70년卒·前경기여고 교사)·蔡基秉(73년卒·둔산여고 교사)·柳子孝(75

년卒·SBS라디오본부장)·李根(76년卒)동문을 선임했다.

법대 11회

李大淳회장 연임

법대11동기회(회장 李大淳)는 최근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룸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李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부회장과 감사도 각각 유임했다. 〈信〉

모교소식

朴晳鉉기획실장·劉永濟입학처장 임명 朴泰鎬대외교류처장·郭守根상임이사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1월 3일 신입 기획실장에 경영대 朴晳鉉교수를 임명했다.

또 새로 신설된 입학처장에 공대 응용화학부 劉永濟교수, 대외교류처장에 국제지역원 朴泰鎬교수를 각각 임명했으며,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경영대 郭守根교수를 선임했다.

차실장은 75년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대학 학장보, 부학장, 경영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劉처장은 74년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과 공해연구회 부회장, 모교 교무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차처장은 75년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기획부실장 겸 국제교류센터 소장,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郭상임이사는 77년 경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호암교수회관 관장, 한국경영학회 대외협력담당 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郭상임이사는 전임 南相午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재단법인 관악회 당연직 이사를 겸하게 됐다.

인문대학 權寧珉학장 선임

치대 鄭鍾平학장·경영대 趙東成학장



權寧珉



鄭鍾平



趙東成

지난 12월 7일 인문대학 학장에 국어국문학과 權寧珉교수, 1월 2일 치과대학 학장에 치주과 학교실 鄭鍾平교수, 1월 22일 경영대학 학장에 경영학과 趙東成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인문대학 權학장은 71년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월간 「문학사상」 편집주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모교 인문대 교무담당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치과대학 鄭학장은 69년 치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치대 학생·교무학장보, 국제치주학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영대학 趙학장은 71년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볼링그린주립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국제경영학회 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모교 경영대 교무학장보, 국제지역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錫道교수 등 24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지난 11월 17일 金錫道교수 등 24명을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새로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錫道(독어독문학)교수, 韓相福(인류학)교수, 南世鎭(사회복지학)교수, 權肅一(물리학)교수, 河永七(생명과학)교수, 金植鉉(경영학)교수, 李忠雄(전기·컴퓨터공학)교수, 高錫元(재료공학)교수, 金相溶(재료공학)교수, 羅亨用(재료공학)교수, 洪性一(재료공학)교수, 李喜根(지구환경시스템공학)교수, 洪性穆(건축학)교수, 李璵鉉(농경제사회학)교수, 趙英濟(디자인학)교수, 沈明鎬(영어교육)교수, 黃迪倫(영어교육)교수, 李順媛(의류학)교수, 朴魯慶(성악)교수, 金勇一(의학)교수, 金丁龍(의학)교수, 金眞浩(의학)교수, 朴贊雄(의학)교수, 崔吉洙(의학)교수.

음악대학

관악합주 연주회

음악대학(학장 金 旻)은 지난 12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관악합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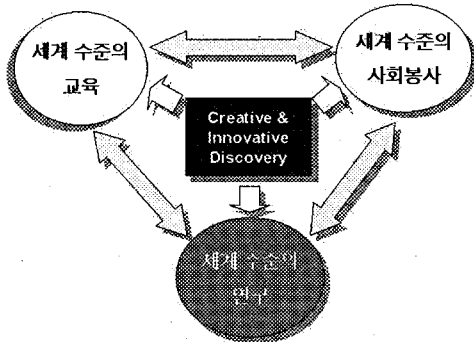
이번 연주회에는 金賢坤·金泳律교수가 지휘를 맡았다. (變)

「뉴 밀레니엄 비전과 전략」

中. 뉴 밀레니엄 목표·전략

III. 뉴 밀레니엄 목표

3.1 뉴 밀레니엄 목표



3.2 세계 수준의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유기적인 결합

■ 연구와 교육

—창의적(crea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세계 수준의 연구를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 기능 담당

—세계 수준의 교육의 수행 및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 기능 수행

■ 연구와 사회봉사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연구, 결과중심적(result-based)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가 기업, 사회,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함

—기업, 사회,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다 창조적, 혁신적인 세계 수준의 연구 기반 조성

■ 교육과 사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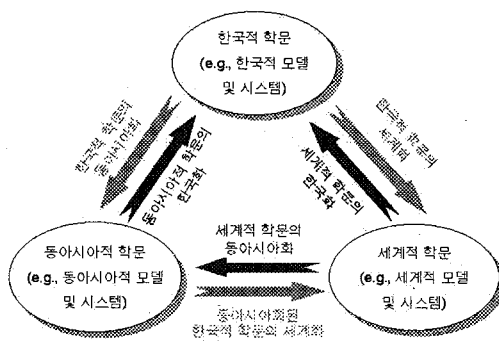
—세계 수준의 교육으로 기업, 사회,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세계 수준의 사회봉사를 통해 기업, 사회, 국가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IV. 뉴 밀레니엄 전략의 기본 방향

4.1 Competitiveness의 강화

세계 수준의 학문 정립



세계화된 대학

- Global standard에 맞는 대학체제와 운영
- Global standard에 맞는 교육과 연구조직
- Global leader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 국제교류의 활성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연구와 교육 : 분야별 육성 전략

- 세계 일류대학을 앞설 수 있고, 국가경쟁력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가 높은 분야
- 세계 일류대학과 대등하거나 국가경쟁력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인 분야 또는 둘 중 하나가 높은 분야
- 세계 일류대학에 비해 뒤떨어지고 국가경쟁

글 실는 순서

- 上. 도입·뉴 밀레니엄 비전
- 中. 뉴 밀레니엄 목표·전략
- 下. 기본 실천 방안

력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분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연구와 교육 : 중기목표 설정과 추진

■ 세계대학 상위권 진입

—3년 내 논문의 질과 양에서 세계 50위권 진입 (1999년 73위)

—10년 내 서울대 50개 학문분야 중 30개 분야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유일의 업적 창출

4.2 Competence의 향상

대학 경영체질의 개선 : 자율화와 합리화

■ 대학운영의 자율화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벗어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의 구축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

■ 대학 시스템과 운영의 합리화

—Global standard에 적합한 대학의 행정조직과 교육, 연구조직 확립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 구축

자원 능력의 강화

■ 인적자원 능력의 강화

—우수 교수인력 확보 및 육성

—우수 학생의 확보 및 육성

—우수 행정직원의 확보 및 육성

■ 재정자원 능력의 강화

—재정의 조달 및 운영능력의 강화와 자율화

—예산 및 회계 등의 자율화를 위한 독립회계 제도 도입

■ 물적자원 능력의 강화

—연구 및 교육시설의 세계화

—각종 재산 및 자원 운용의 효율화

—지원시설(에너지,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 정보자원 능력의 강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정보 축적 및 활용 능력 극대화

대학문화의 발전

■ 대학문화의 창달과 발전

—이념과 비전의 공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에너지로서 대학 문화 정립

■ 민족의 대학, 겨레의 대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 수행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대학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학

4.3 Connection의 증대

Global network 형성

■ Global network와 strategic alliance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기관, 전문가 등과의 network와 전략적 제휴의 강화

—Global human network

—Global research network

—Global education network

—Global social service network

■ BESETO network의 확립 및 강화

—동아시아 선도대학으로서 BESETO network 강화 (다음호에 계속)

문화

新刊

■ 두 사람의 풍경과

리삼월

—張潤宇 著



집을 펴냈다.

문단데뷔 37년이 되는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박물관장)이 사장이 열 번째 시집을 펴냈다.

■ 김문창 명상록

—金文昌 著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金文昌(65년 文理大卒) 교수의 에세이집. 「불혹의 봄」을 통해 「우리는 아직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늙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위에선 어느덧 늙었다고 등을 밀고 있다」고 서술했다. 「상징반응」 「효도의 등급」 「예로니모 김충화 선생님」 등 63편의 글을 묶었다. 주로 인하대학교 신문에 실린 글들이다. (시와시학사刊·값8,000원)

■ 우리 농업엔

시간이 없다

—許信行 著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許信行(66년 農大卒) 사장이 WTO가 오는 3월부터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산문시집을 펴냈다.

許潤宇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전환기 농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깨달음이 늦었던 사유를 분석한 다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들을 詩로써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刊·

비매품)

■ 영미문학의 탐구

—崔鴻圭 著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崔鴻圭(68년 敎大院卒)교수가 화갑기념 논총을 펴냈다.

崔 교수의 논문 「Walt Whitman의 인간과 연구」를 포함한 동료 후배 영문학자들의 40편의 영미문학과 문화에 관한 논문을 한데 묶어 편찬했다.

■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식탁

—牟壽美·權純子·李敬信 옮김



모교 생활과학대학 牟壽美(75년 大學院卒) 명예교수와 배재대 權純子(81년 家政大卒) 교수, 모교 생활과학대학 李敬信(86년 家政大卒)강사가 공동으로 아다치 미유키(足立己幸)의 작품을 번역했다.

맛벌이 부모, 사이버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어린이의 食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요즈음 어린이의 食과 건강문제를 생각하고, 호트러지가 쉬운 건강·식생활의 예방과 최선책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리라 본다. (교문사刊·값8,000원)

■ 回歸로 향한 公職者像

—權奇成 著



한국레미콘산업연합회 權奇成(79년 行大院卒)부회장이 경제기획원, 대통령비서실, 상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0여년 공직생활의 추억들을 한 권에 담았다.

개발년대의 공직자상, 꿈 펼쳐진 경제기획원 생활, 상공행정에서 쏟은 열정, 공정경쟁의 염원, 영·일문 논설과 강연, 공직의 여념과 단상 등 6부로 나뉘어 지름길이 없는, 소박하고 겸허한 노정을 정리했다. (자기사刊·값10,000원)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

필자는 서울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운가?」라고 한다면 얼른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다니는 학교니까?」「각계 각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신의 출세와 자기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 노력의 결과이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성품이 따뜻하여 한번 친해지면 그 정이 끝없이 깊어져 혈육과 다름없게 된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는 무뚝뚝하기 짝이 없다. 산이나 오솔길에서 눈이 마주쳐도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친다. 잘못 눈을 쳐다보다간 「왜 찌려보냐?」하고 시비가 붙기 십상이다. 그러나 만약 저쪽에서 살짝 미소짓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사뭇 가슴이 뜨거워져 나도 모르게 「아, 네~안녕하세요」라고 화답하게 된다.

이렇듯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눈이 마주치면 미소짓고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주위는 금세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살맛 나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우리 동네, 우리 사회는



睦潼均(67년 音大卒)
(주)스키마 시스템즈 대표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 씨앗이 필요한데, 바로 서울대 동문들이 그 역할을 하자. 서울대 총동창회가 「(미소와 함께)안녕하세요?」운동을 전개하자. 미소(스마일)배지라도 만들어 서로 달아주며, 너나 할 것 없이 미소운동에 참여하는 씨앗이 되자.

Badish vs Konglish

나는 회사를 잘 선택한 덕분에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과 동료로서 친분을 맺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물론 언어는 영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늘 느끼는 바지만, 같은 영어를 어찌하면 그렇게도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것인지... 특히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이 가미된 영어를 불편 없이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어를 더 잘 통용시키기 위해 한국식 영어의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표준 영어에 집착해 남의 서툰 영어발음을 홍보는 풍조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Konglish라 할지라도,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자.

그러나 우리의 Konglish가 외국인들에게 통하기는 하는 것인가? 다른 영어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호주에서는 「에이」를 「아이」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당황하기가 쉽다. 또, 중국 사람들의 영어는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날지조차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들 말에서 쓰는 四聲을 영어에도 별 생각 없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 영어의 경우에도 더 나을 것은 없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영어가 아니라 인도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창함으로만 본다면 인도인의 영어는 사실상 모국어 수준이다. 이런 이유를 때문에 표준 영어의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어이하라. 누가 뭐라 해도

Konglish는 이들 특이한 습관을 가진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확신한다. 남의 흉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편안한 국제화가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Konglish의 존재를 인정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인 대다수의 영어 구사력이 중국 화교 수준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韓昌坤(77년 商大卒)
SAP 코리아 이사

계절마다 다른 치과진료

「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다들 알겠지만 입술이 부실하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하지만 입술이 튼튼해도 이는 시릴 수 있다. 얼마 전 동창 한 명이 필자의 클리닉을 방문, 이가 몹시 시리다는 말을 해 구강검사를 해보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구강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추측컨대 구강병의 종류가 소위 충치, 풍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일반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인에게 발병률이 높으며, 겨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강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아마모증」이다. 이는 치아구조의 일부가 닳아 없어지는 병으로, 주로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나 교합이상으로 발생된다.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울철에는 남들보다 이가 더 시리다. 이것은 치과 의원에서 쉽게 치료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가까운 병원에 들러 치료하면 된다.

왜 뜬금 없이 순망치한이니, 치아마모증이니 하는 화제를 끌어냈냐고 한다면 치과진료도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봄철에는 화령기 아동진료가 많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학교 구강검진이 시작되고, 이때 발견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어린이들이 병원을 찾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 덕에 치아 주변의 염증성 질환자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가을철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복을 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앞서 말했듯이 시린 치아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요즘에는 위와 같은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진 듯 하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



尹映皓(93년 齒大卒)
치과의원장

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계절의 변화도 예전처럼 뚜렷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도 계절의 변화를 직면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져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계절과는 아무 상관없이 구강과 그 주위에 생기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니,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친절하게 진료를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연락처: 489-2875)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0년 12월 12일~12월 14일·一般: 2000년 12월 11일~12월 14일〉

회 장 단

▲부회장 李龍兌=1백만원
▲부회장 張翼龍=1백만원
▲부회장 李丙俊=1백만원
▲부회장 金基炳=1백만원

관 약 회

▲감사 朴柱鐸=30만원

상 임 이 사

▲李淳鍾 AIP동창회장=20만원

이 사

◇工科大學

▲박찬민⁶³ ▲최돈웅⁵⁸

◇農科大學

▲김상호⁶² ▲윤대섭⁵⁵

◇文理科大學

▲박범진⁶⁴ ▲박봉기⁶⁶ ▲박성훈⁷³
▲박한상⁴⁸

◇法科大學

▲고명운⁵⁹ ▲권영길⁷⁶ ▲신희범⁶⁸
▲조용구⁷⁹

◇師範大學

▲박남기⁵⁵

◇商科大學

▲김영근⁶⁸ ▲박성석⁶⁵ ▲박수환⁶⁹
▲유무성⁶⁶ ▲유희준⁵⁵

◇藥學大學

▲김용정⁶² ▲윤도중⁶² ▲최양웅⁶⁵
▲한상후⁶⁸

◇音樂大學

▲김민복⁴⁸

◇醫科大學

▲김동순⁷³ ▲노동두⁵¹ ▲한만희⁶³

◇齒科大學

▲임철중⁶⁷

◇大學院

▲심병구⁶⁶

일 반

◇人文大學

▲김홍식⁷⁷ ▲신인수⁸⁵ ▲이재구⁸⁸
▲조상훈⁹⁰

◇社會科學大學

▲김영옥⁹⁰ ▲이조영⁹²

◇自然科學大學

▲김진권⁹⁵ ▲배용수⁸¹ ▲손병화⁸⁹
▲이도원⁷⁸ ▲임근식⁸⁰

◇家政大學

▲이선영⁸² ▲이정원⁷² ▲정귀화⁸⁴

◇看護大學

▲서춘원⁷⁰ ▲장내원⁴⁹

◇經營大學

▲문영국⁸⁶ ▲민봉식⁸⁴ ▲이익찬⁹⁰
▲차순관⁷⁶ ▲황성식⁷⁸

◇工科大學

▲강현태⁷³ ▲구남서⁹⁰ ▲구자관⁷⁷
▲김 석⁷⁷ ▲김상진⁶⁸ ▲김선재⁸⁵
▲김영도⁷¹ ▲김일섭⁹⁵ ▲김주영⁶⁴
▲김태훈⁷⁰ ▲나정웅⁶³ ▲남기홍⁸³
▲동병천⁷⁹ ▲문준희⁹² ▲문찬국⁷⁷
▲박명하⁶⁶ ▲박선길⁶⁶ ▲박성진⁹⁶
▲박용태⁸³ ▲박의승⁷⁷ ▲박재욱⁷⁹
▲박종국⁹² ▲박희재⁸⁴ ▲서동길⁸⁷
▲송동익⁷⁸ ▲신경식⁵⁵ ▲신동식⁷⁷
▲신동준⁸³ ▲신원기⁷² ▲심문호⁸⁵
▲안봉규⁷⁰ ▲양금환⁵⁷ ▲양지영⁹⁴
▲오덕호⁷⁴ ▲윤영섭⁷⁰ ▲이범택⁶⁹
▲이영진⁷⁹ ▲이완국⁶⁹ ▲이완기⁵⁹
▲이우일⁷⁶ ▲이원표⁸³ ▲이응숙⁸⁰
▲이재훈⁷⁷ ▲이중구⁶⁰ ▲이행선⁹⁵
▲이형석⁷⁰ ▲이흥기⁶⁷ ▲이흥재⁸³
▲장용준⁸⁸ ▲전명석⁸⁷ ▲정재철⁷²
▲정진태⁸⁴ ▲정현만⁶² ▲조남산⁷⁰
▲조병문⁶⁵ ▲주덕영⁶⁶ ▲차장욱⁶⁵
▲천의영⁸⁵ ▲최동훈⁸⁴ ▲최병두⁵²
▲최병주⁵⁷ ▲최승주⁷⁶ ▲최장동⁶⁰
▲한재성⁸³ ▲황규렬⁵⁷ ▲황정환⁶⁹
▲황택수⁷⁸

◇農科大學

▲권성기⁸⁹ ▲권태걸⁶³ ▲김용규⁸⁷
▲김경수⁹⁵ ▲김남영⁶⁴ ▲김성기⁶⁴
▲김종덕⁶⁹ ▲김학기⁷⁰ ▲박금주⁷⁵
▲박재현⁵³ ▲백정자⁶⁴ ▲신기철⁷⁸
▲이태근⁸⁴ ▲이태영⁵⁵ ▲이현범⁶¹
▲임진득⁷⁸ ▲최원석⁸⁶ ▲허제한⁹⁰

◇文理科大學

▲김상욱⁷² ▲김선기⁶⁹ ▲김용정⁶⁵
▲김윤호⁶³ ▲김일광⁷¹ ▲김제완⁶⁸
▲김효근⁵⁷ ▲손현래⁶⁴ ▲송병찬⁶³
▲신용대⁶⁴ ▲유명수⁷⁴ ▲이상택⁶¹
▲이신행⁶⁴ ▲이태국⁵⁰ ▲임남수⁵⁷
▲진홍일⁶⁶

◇美術大學

▲구 상⁸⁹ ▲권애경⁷⁵ ▲김경자⁶⁵
▲심차순⁶¹ ▲이상용⁹⁰ ▲장화진⁷³
▲정용국⁹⁹ ▲정희숙⁹⁸ ▲정희우⁹⁷
▲조우호⁹¹ ▲조항범⁸⁷ ▲최숙경⁶³
▲홍주옥⁹⁹

◇法科大學

▲강명준⁸² ▲곽태훈⁷⁶ ▲김중환⁵³
▲박정식⁶⁶ ▲송삼섭⁷² ▲여미숙⁸⁸
▲연광석⁹¹ ▲유달선⁶⁶ ▲이건웅⁶⁶
▲정대훈⁷⁶ ▲조영수⁸⁰ ▲한영희⁵⁵
▲허윤강⁶⁴

◇師範大學

▲김옥청⁴³ ▲김정환⁴⁴ ▲김정희⁶²
▲김창철⁶⁵ ▲김현중⁶¹ ▲문기상⁶⁵

▲선우문숙⁴³ ▲설홍수⁷⁵ ▲심용섭⁶¹
▲안종만⁶⁷ ▲안준천⁵² ▲윤덕원⁴³
▲이영자⁶⁰ ▲임영관⁶¹ ▲전영식⁸⁸
▲전영학⁷⁷ ▲정대범⁶⁴ ▲조기호⁵⁸
▲조정기⁶⁷ ▲채두승⁹⁵ ▲최경렬⁸⁵
▲최정숙⁶⁷ ▲홍성일⁷⁷

◇商科大學

▲박상균⁷¹ ▲박영도⁶⁴ ▲서연호⁵⁸
▲어윤봉⁶² ▲이수신⁷⁰ ▲이양규⁷²
▲주영하⁴⁸ ▲최남식⁶⁵

◇獸醫科大學

▲김종건⁶⁹ ▲박호인⁷⁵ ▲윤용근⁵⁹
▲이종경⁷⁹ ▲한장희⁶⁴

◇藥學大學

▲강순철⁵⁹ ▲김영자⁵⁵ ▲박명환⁷⁷
▲조동화⁵⁴ ▲한은아⁹⁵

◇音樂大學

▲강명화⁸⁵ ▲기주희⁸⁶ ▲배은경⁸⁹
▲송원숙⁵⁰ ▲이창애⁶⁷ ▲조원삼⁷¹

◇醫科大學

▲나영호⁷⁷ ▲오용석⁷⁷ ▲윤취중⁷⁸
▲이영철⁸³ ▲이인식⁸² ▲이재식⁸⁵
▲이효석⁷⁴ ▲홍성관⁸³

◇齒科大學

▲김영규⁷⁶ ▲김정복⁷⁸ ▲박선병⁷²
▲박재간⁸⁵ ▲배현성⁷¹ ▲양희택⁷⁵
▲염정배⁷⁴ ▲이순규⁷⁵ ▲정명선⁴⁹
▲최호영⁶²

◇大學院

▲강희돈⁷⁶ ▲곽종구⁸⁸ ▲김동식⁸⁷
▲김윤희⁸³ ▲문형근⁸¹ ▲이귀숙⁸³
▲이남형⁷³ ▲홍성원⁶⁶

◇經營大學院

▲김성준⁹⁴

◇教育大學院

▲김창걸⁷⁰

◇保健大學院

▲권혁한⁷⁷ ▲김상욱⁶⁹ ▲서문석⁹⁹
▲신형근⁷⁰

◇行政大學院

▲이대순⁷³

◇環境大學院

▲김영순⁹⁰ ▲박상락⁸⁸ ▲배준구⁸¹
▲송창재⁷⁶

◇최고경영자과정

▲강성철³⁵ ▲변자섭¹⁴ ▲유병진⁴⁹
▲유시수²⁵ ▲이상일²⁷ ▲이승배³⁷
▲이준호²⁴ ▲정승태²⁷ ▲조봉구¹⁹
▲최성종⁴⁷ ▲표마선⁴⁹ ▲허필수⁴⁹
▲황순구¹²

◇최고산업전략과정

▲김건일¹⁶ ▲김성근¹⁸ ▲김승겸¹⁶
▲김완규¹⁵ ▲김종원¹⁸ ▲박노관¹
▲박무영⁷ ▲손인국⁴ ▲안문호²²
▲안정환¹¹ ▲양승휘¹⁸ ▲유춘중¹⁴

▲윤덕중²⁰ ▲윤창국⁸ ▲이명호²⁰
▲이은택⁶ ▲이준각⁹ ▲이호재²¹
▲임종한¹⁵ ▲조흥구¹⁸ ▲한미학⁵
▲황해진²²

◇국가정책과정

▲김광철⁴⁷ ▲김덕승² ▲김유복⁴
▲김재진²² ▲김종호¹⁸ ▲김태완⁴⁴
▲김홍근¹¹ ▲박명서²⁷ ▲박선만²⁵
▲방일홍⁵ ▲유동주²⁸ ▲윤용인²¹
▲윤정식⁴¹ ▲이규정¹³ ▲이민복³³
▲이보우³⁵ ▲이성우⁴⁷ ▲이정구²²
▲이종현⁴⁰ ▲이중형²⁸ ▲이휘운²⁹
▲장기철³³ ▲장희전⁴⁹ ▲전 홍⁴⁸
▲전종식⁷ ▲정승태³⁰ ▲조병준¹⁷
▲조우현⁸ ▲지태욱²⁰ ▲최상필³¹
▲최익한⁵ ▲최재선¹⁸ ▲홍성덕³¹

◇고급금융과정

▲고태순¹⁵ ▲곽순도⁶ ▲구태군⁷
▲김남석⁹ ▲김복석¹¹ ▲김윤태¹⁵
▲김익남² ▲나종목¹² ▲박길태¹¹
▲신경양⁵ ▲심충식³ ▲오정남¹⁵
▲이 기³ ▲이 명⁸ ▲이영진⁵
▲조상익² ▲조영전¹ ▲최실근¹³
▲최인규⁹ ▲홍재문¹⁰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곽현식³ ▲김교열⁴ ▲김창섭⁶
▲김향태⁶ ▲박현진¹ ▲오전섭⁶
▲이교진⁵ ▲이성호⁴ ▲이순범⁶
▲장현익⁵ ▲조병호⁶ ▲조상원⁶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종호⁴ ▲박용하² ▲박종인⁵
▲박춘선⁵ ▲이기채³ ▲이원재³
▲이춘섭⁵ ▲임영식⁵ ▲정병재⁵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용숙² ▲김윤신² ▲박정호⁷
▲조미자² ▲홍성숙⁵

◇보건의료정책과정

▲김석호³ ▲김영권⁶ ▲김주필⁴
▲김황준⁵ ▲박성각⁵ ▲송상진³
▲송재성² ▲오국진⁵ ▲오용성⁶
▲윤덕보¹ ▲이계복² ▲최종기⁶
▲현대우¹

지부분담금

◇중국 북경: 628,050원

◇중국 상해: 605,440원

◇오스트리아: 628,050원

◇춘천교대

▲강태완 ▲권덕원 ▲김광명
▲김남일 ▲김상욱 ▲김완근
▲김정희 ▲김홍수 ▲나병소
▲노경주 ▲박민수 ▲박준수
▲배성재 ▲백정자 ▲서동엽
▲성의용 ▲심우엽 ▲이길중
▲이대형 ▲이도영 ▲이면우
▲이성영 ▲이영문 ▲이완섭
▲이재봉 ▲이형준 ▲이환기
▲장병기 ▲장성모 ▲전홍열
▲조동섭 ▲추병완 ▲한진구

합 계: 14,221,540원
누 계: 629,791,026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2000년 12월 1일~12월 31일〉

개 인

◇社會科學大學

▲서종철⁸⁸ ▲임세희⁹⁹

◇自然科學大學

▲김재현⁹⁴

◇看護大學

▲권희경⁹⁷ ▲박미영⁸⁹

◇經營大學

▲강두골⁸⁹ ▲문종범⁹⁰

◇工科大學

▲유승근⁵⁷ ▲이삼형⁴⁹ ▲전갑문⁵⁷
▲전주영⁹⁹ ▲최병삼⁷²

◇農科大學

▲박재현⁹⁰

◇文理科大學

▲박종수⁷¹

◇法科大學

▲박영아⁹⁸

◇音樂大學

▲이은자⁸²

◇大學院

▲권혁상⁹⁶

◇최고산업전략과정

▲정윤경⁶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박정호⁵

◇보건의료정책과정

▲황영운⁴